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홍민(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3. 08. 17. | CO 23-22

북한은 지난 『노동신문』 8월 6일 자, 14일 자 보도를 통해 8월 3~5일, 11~12일 사이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요 군수공장들에 대한 현지지도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은 집권 이후 이번 두 차례를 포함해 총 3회다. 통상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군사 보안 차원에서 ‘군수공장’이라고 밝히지 않고 ‘기계공장’ 명칭으로 위장하여 보도하거나 아예 방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 왔다. 집권 이후 공개된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개별 공장 방문 건수로 총 53회였는데, 이번처럼 ‘군수공장’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수공장’ 현지지도 보도는 이례적이며 특정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기 위한 의도적 공개로 볼 수 있다.

8월 3~5일 현지지도는 자강도 강계시 일대 군수공장, 8월 11~12일 현지지도는 평안남도 일대 군수공장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강계시 일대 군수공장을 집중 현지지도한 것은 이번을 포함 총 세 차례다. 2013년 6월, 2019년 6월, 이번 8월 3~5일 등인데 세 시기는 일정한 공통점을 갖는다. 강경한 정책 전환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강계시 일대 군수공장을 방문한 점이다. 모두 핵·미사일 고도화에 있어 ‘강경한 전환’을 대외적으로 가시화하는 행보에 해당한다.

이번 두 차례 군수공장 보도에서는 ‘현대화’(16회), ‘생산능력 확대’(12회), ‘전쟁준비’(10회), ‘정밀화 및 질 제고’(10회), ‘계열생산’(5회) 등의 순으로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번 현지지도 보도는 ‘빠른 생산 확대’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를 제품화하는 ‘생산능력의 확대’, 즉 무기의 대량생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기 대량생산 목적으로 ‘전쟁준비 완성’을 내세웠는데, 이는 첫째,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압박감과 초초함의 반영, 둘째, 정세긴장의 원인을 한미에 전가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전선 강화에 활용하는 측면, 셋째, 대마·대남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언급한 군수공장 생산 무기들은 중 일부는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제원을 갖춘 것으로 향후 북러간 무기협력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집권 이후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도에서 나타난 전반적 특징 속에서 이번 현지도의 의미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북한 지도자의 ‘공개활동’은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TV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공개활동’에는 현지도 이외에도 (부대)시찰, 훈련·연습지도 및 참관, 각종 회의 지도 및 참석, 방문(참배), (경기·공연) 관람, 기념사진 촬영, 접견·면담, 연회, 축하·표창, 연설, 시운전, 식수, 장례·영결·조의 등이 있다. 지도자의 통치코드, 정책기조, 대내외 메시지, 권력동향 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다. 이외에 보도하지 않는 ‘비공개 활동’도 있다. 군사적 보안, 김정은 개인정보나 동선 노출 위험 등의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다. 전체 활동 중 대략 10~15% 정도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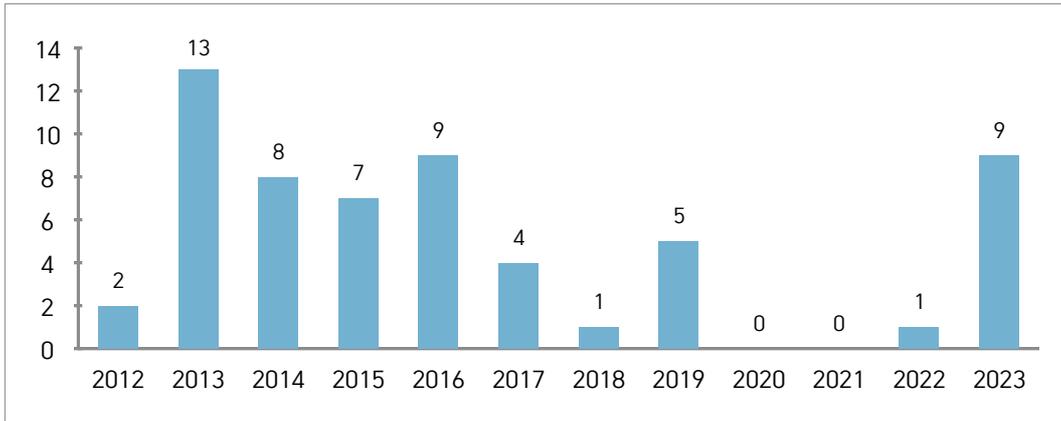
‘군수공장’ 현지도 이례적 공개, 무기 제작공장 내부 공개는 총 3회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의 경우 상당수가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군수공장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 공장처럼 위장공장명으로 소개해 왔다. 군수공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하여 보도할 경우, 보통 두 가지 보도상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생산품목이나 실태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내용과 사진을 제한해 생산 관련 일반적 사항만 보도한다.²⁾ 둘째, 수행자 및 영접자에 군수 담당 관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다. 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 군 지휘부 등의 인물이 수행자로 동행한다. 공개되는 수행자 명단만으로도 해당 공장의 역할이 일반 군수물자 생산인지 중요 무기 관련 생산인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집권 이후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도는 개별 공장 방문 건수로 따지면 총 53건이다.³⁾ 공식적으로 ‘군수공장’이라고 밝힌 세 차례 보도(총 9개 공장 방문)를 제외한 나머지 45건은 군수공장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군수공장으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되는 공장들이다.

1) 김정은의 ‘중요 군수공장’ 현지도를 보도한 2023년 8월 6일 자 노동신문에서 “지난해 11월 9일 공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제시하신 대구경방사포탄 계열생산을 위한 능력조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당시 보도하지 않았지만, 2022년 11월 9일 김정은이 ‘비공개’로 대구경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통 일반 공장 현지도의 경우 생산품목 및 실태, 과업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으로 생산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3) 방문 단위 건수는 여러 군수공장을 날짜를 달리하며 현지도한 후 하나로 묶어 보도했을 때, 보도 ‘건수’로 1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도 내에서 여러 공장 단위를 방문했을 경우 각 공장 1개를 방문 건수로 집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김정은 공개활동 중 군수공장 현지지도 방문 단위 건수



*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 <<https://www.kinu.or.kr/nksdb>> 참조.

북한이 ‘군수공장’ 용어를 쓰며 김정은 현지지도를 처음 보도한 것은 2022년 1월 28일자 『노동신문』에서다.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힌 이날 보도에서 5장의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국방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이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인지,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⁴⁾ 따라서 ‘군수공장’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인지를 밝힌 것은 이번 8월 6일 자, 14일 자 현지지도 보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노동신문』에서 ‘군수공장’이라고 밝힌 현지지도

보도일자 (방문일자)	공개활동 장소	수행자
2022. 1. 28.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함남 추정)	김여정, 김정식, 조용원
2023. 8. 6. (8.3.~5.)	초대형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약전기구공장 확장 건설현장	
	저격무기 생산공장	
	전략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엔진생산공장	
2023. 8. 14. (8.11.~12.)	전략무기 대형발사대차 생산 공장	조춘룡, 김정식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4) 다만 이날 노동신문 ‘군수공장’ 보도는 김정은의 연포남새운실농장(함남 함주군) 현지요해 보도와 같이 실렸고 군수공장 현지지도 당시 북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함흥시 일대에 있는 군수공장으로 추정된다.

최근 8월 3~5일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언급된 생산 무기와 사진으로 볼 때, 중요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일대로 추정된다. 과거 강계시 일대 공장 현지지도 시 공개된 공장들의 내부 사진의 모습과 유사하다.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26호공장, 로켓 및 미사일, 방사포탄, 어뢰),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93호공장, 소총·기관총, 탄약류, 지대지·지대공·공대지 등 각종 미사일 및 포탄류, 다연장로켓, 기뢰, 어뢰), 장자강공작기계공장(고사포 자동화 조준발사장치), 압록강다이아공장(미사일 발사차량 타이어 전문), 2·8기계종합공장(65호공장, 권총류와 자동소총류, 고사총과 소형 로켓포) 등으로 추정된다.

8월 11~12일 현지지도 한 군수공장들의 경우 전술미사일 및 발사대차 생산공장은 각종 미사일을 생산하는 제4기계공업국 산하 평남 남포의 태성기계공장(중장거리미사일), 평남 개천의 1월18일기계공합공장(미사일 및 탱크 부품), 평양의 1월25일기계공장(미사일 종합공장), 산음동병기연구소(장거리미사일 최종조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전투장갑차 생산공장의 경우 제2기계공업국 산하 평남 개천의 1월18일기계공합공장(탱크, 장갑차, 미사일발사대), 자강도 성간강철공장(제81호공장, 미사일 발사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구경조중방사포탄 생산공장의 경우 제3기계공업국 산하에 있는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122, 240mm 방사포탄), 청진의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122, 240mm 방사포탄), 만포시멘트공장(제96호공장, 대공로켓, 방사포탄), 평남 성천의 제67호공장(각종 포탄류, 미사일 부품) 등이 있는데 이들에 걸친 동선으로 볼 때, 평안남도 일대 군수공장들로 추정된다.⁵⁾

핵 미사일 위협도 높이는 ‘강경 전환’ 시 강계 일대 군수공장 방문

강계시 일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집권 이후 공개된 것만 이번을 포함 총 세 차례다. 첫 현지지도는 1차 2013년 6월, 2차 2019년 6월, 그리고 3차는 이번 8월 3~5일 등이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들 세 시기는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경한 정책 전환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강계시 일대 군수공장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은 3차 핵실험 직후 경제와 핵무력의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직후, 2019년 6월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4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한 직후, 이번 군수공장들 방문은 4월 한미의 <워싱턴선언> 이후 확장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여 북한이 북러, 북중 밀착 행보를 강화하며 ‘압도적 공세’를 강조한 직후 이뤄졌다.

5) 오경섭 외,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10~231.

세 차례 모두 핵·미사일 고도화에 있어 강경한 ‘전환’을 대외적으로 가시화하는 행보에 해당한다. 1차 시점이 집권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의 구체적 계획(국방기술현대화 계획)을 가시화하는 지점, 2차 시점은 미북대화 결렬 이후 전술핵 탑재 미사일 개발 가시화 지점, 3차 시점은 한미 억제력에 대응한 핵·미사일 작전화 및 대러 무기 판매 가시화 시점이다.

핵심 메시지는 무기의 ‘대량생산’과 ‘전쟁준비’, 한미 대응과 러시아 무기 지원 포석

이번 두 차례 군수공장 보도에서 등장한 용어들의 빈도를 보면, ‘현대화’(16회), ‘생산능력 확대’(12회), ‘전쟁준비’(10회), ‘정밀화 및 질 제고’(10회), ‘계열생산’(5회) 순이다. ‘현대화’의 경우 무기 생산에 있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생산공정 현대화를 위해 ‘정밀화 및 질 제고’, ‘계열생산’을 강조했는데, ‘정밀화’의 경우 주로 ‘제품(무기)의 정밀성’, ‘포탄품질관리 과학성 보장’ 등 생산된 무기의 ‘품질’에 대한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서 무기를 일종의 ‘제품’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례적이다. ‘계열생산’은 보통 같은 계통에서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부분품들로 조립할 수 있는 장비의 생산을 의미한다. 소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생산능력 확대’ 표현만 무려 12회 등장했다. “생산능력 급격히 확대”, “생산에서의 속도”, “생산능력제고”, “생산능력 보장”, “생산능력 무단히 확장”, “기동성 있게 생산보장”, “미사일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 “신속한 개발생산”, “장갑차생산능력을 확대”, “조정방사포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 등 사실상 이번 현지도 보도는 ‘빠른 생산 확대’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두 차례 보도 전반에서 현대화, 정밀화, 계열생산 등을 통해 강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기를 제품화하는 ‘생산능력의 확대’, 즉 무기의 대량생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보도를 통해 무기의 대량생산 목적으로 ‘전쟁준비 완성’을 내세웠다. ‘전쟁준비’ 용어만 무려 10회 사용했다. ‘전쟁준비’를 강조한 것은 다중적 포석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나토(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한미의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가동,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 SSBN) 한반도 전개, 한미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등에 공세적으로 반응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9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보도를 통해 김정은은 ‘현 정세’를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압도적인 전쟁 대응 의지와 철저히 완전한 군사적 준비태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전쟁준비’를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기존에 상투적으로 쓰던 ‘전쟁억제력’에서 최근에는 전쟁임박설을 주장하며 ‘전쟁준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부분이다.⁶⁾ 그 전략적 의도로는 첫째, 한미 <워싱턴선언>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빠르게 강화되면서 북한의 압박감과 초조함이 커진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전쟁임박’, ‘전쟁준비’라는 긴장성을 조성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전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측면이다. 한·미·일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 ‘압도적 공세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피력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가 느끼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자극하려는 차원이다.

셋째, ‘전쟁준비’를 명분으로 러시아 무기 지원에 필요한 양산체계를 갖추는 차원이다. 북한은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6.8.~10.)를 통해 무기 생산공정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최소한 이미 1년 전부터 무기의 ‘대량생산’을 정책 기조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대남 억제의 측면도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한 양산체계를 일정 부분 계획해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⁷⁾ 지난 7월 27일 러시아 국방장관이 정전협정체결 70주년 무장장비전시회 및 열병식 참관한 이후의 이번 군수공장 보도는 대러시아 무기 세일즈를 사실상 가시화하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전쟁준비로 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러시아 공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위협적 공세성과 대러시아 무기 지원 가시화 등을 통해 대미·대남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측면이다. 특히 군수공장 방문이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경고성 의미 역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6) 한미의 <워싱턴선언> 직후 북한은 김여정의 조선통신사 입장발표(2023.4.29.)를 통해 핵협의그룹(NCG) 가동,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입해야 할 환경을 제공” 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북한 매체는 ‘전쟁준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억제력 강화활동(2023.5.30.,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위력 강화 입장 표명),” “실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2023.7.17., 김여정 부부장 담화),”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 …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국면 …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2023.7.20., 강순남 국방상 담화),”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대한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토의(2023.8.10.,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7)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8월 16일 북한과 러시아 무기를 중재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이 거래된 것으로 발표했다. (“미, 북·러 무기거래 간선 3개 기관 제재... 네트워크 발본색원,” 『연합뉴스』, 2023.8.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02400071?section=orth-korea/all>> (검색일: 2023.8.17.).)

군수공장 생산 무기들, 대러시아 지원에 맞춘 사양

이번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언급한 무기들은 그 면면을 볼 때, 내부적인 전쟁준비로 포장을 했지만, 대러시아 지원을 염두에 둔 제품들로 볼 수 있다. 우선 ‘(초대형)대구경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두 차례 현지지도 보도 모두에서 언급한 것은 당장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사포탄 생산에 대해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6.11.)에서 생산공정 현대화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2022년 11월 9일 방사포탄 생산공장에 대한 비공개 현지지도를 통해 “대구경방사포탄 계열생산을 위한 능력조성”을 제시했던 것으로 볼 때, 이미 1년 여전부터 러시아 지원을 염두에 두고 대량생산체계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약전공장의 확장공사는 포탄, 폭약의 대량 제조를 위한 시설 확장 움직임으로 보이며, 전시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실질적으로 러시아 포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신 소총과 저격무기 공개도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로 볼 수 있다.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전투적 성능 만족”이란 표현으로 봐서 내부적인 전쟁 준비로 포장을 했지만, 외형을 볼 때 최신 사양의 서방 무기를 모방한 것으로 러시아 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무기로 볼 수 있다.

셋째,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생산공장은 올 상반기 공개했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화살-2>형이 양산체제로 들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인공격기는 지난 7월 무장장비전시회 및 열병식 때 전격 공개 후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양산체제를 강조하고 있어 빠른 실전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무기 역시 전쟁을 치루고 있는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이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 포착이 어렵고 은밀성과 정밀성 등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고 흑해 및 지상작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무인공격기 역시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지난 열병식 공개 수준으로 볼 때, 일정 수준의 기능을 할 경우 당장 전장에서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

넷째, 전술미사일 및 발사차량 생산공장은 대미·대남 대응용, 대러시아 지원용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의 발사차량은 최근 열병식 등장 당시 북한관 이스칸데르(KN-23), 북한관 에이태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을 실었던 차량들이다. 이들 미사일은 사거리 300~800km에서 운용되는 무기로 배치 위치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꺼려왔던 에이태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⁸⁾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의식해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유도기능을 가진 122mm, 240mm 방사포탄 생산공장도 방문했는데, 이 구경의 포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전투장갑차 생산공장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운전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 영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장갑차 등 기계화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상전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대러시아 세일즈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략미사일 발사차대 생산공장은 대미용으로 ‘발사차대’를 대량생산하여 기동성을 갖추고 어느 곳에서도 발사 가능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 미사일) 및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전개에 대응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 향상 차원에서 발사차대의 대량생산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 대형발사차대 생산을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사업”으로 강조, 대미 역제의 핵심을 이 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8) ““미, 우크라이나 ‘에이태컴스’ 지원 검토 중”…사거리 300km 미사일,” 『한겨레』, 2023.7.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9777.html>> (검색일: 2023.8.17.).